

신장에 이어 간까지 기증하고 골수까지 기증하겠다는 젊은 스님이 있어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경남 창원군 월령사의 도우스님. 스님은 지난 2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말기 간경화 환자인 김모 씨(30·회사원 서울 강서구)에게 15시간이 넘는 대수술 끝에 간일부를 떼어 주었다.

신장 이어 간 기증한 도우스님

“골수도 필요하면 드리겠어요”

통도사 학인시절 장기제공 서원

“장기기증 보살행에 많이 동참하길”

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길을 고민하던 스님은 지난 99년 8월, 세브란스 병원에서 생면부지의 신장질환자에게 자신의 왼쪽 신장을 선뜻 내놓았다. 첫 번째 기증. “나의 장기 일부가 꺼져가는 생명을 살리게 됐다는 데 환희심을 느꼈다”는 스님은 당시를 생각하는 듯 편안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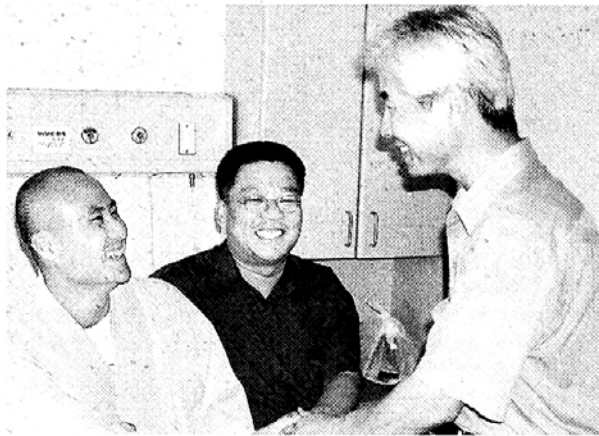
“머리 깎은 출가수행자로서 육신에 집착할 이유가 없어 한 번 더 마음을 냈다”는 도우스님은 “장기기증이라는 몸보시기 특별한 것이 없어 세간에 알려지는 것이 속스럽지만 간 기증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알려서 장기 기증을 애타게 기다리는 환

자들에게 장기기증의 선연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무런 조건 없는 자비와 보시행을 직접 실천해 보인 스님은 이것도 모자라 이미 3개월 전에 혈액암 환자들을 위해 골수 기증 신청도 해놓은 상태다. 스님은 “사람들을 이익 되게 하는 방법은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장기 기증만큼 참다운 보시행은 없다”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는 장기기증에 동참하기를 바랐다.

지난 97년 경남 통도사 주지 월파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도우 스님은 통도사 승가대학에 이어 지난해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이석수술 하루전인 20일, 지난 4월 이미 신장과 간을 기증했던 강원필씨, 생면부지 김모씨(손오른쪽)와 함께 도우스님이 웃고 있다.

부인과 5살, 3살 난 두 아들을 둔 가장인 김씨는 “스님의 간 기증이 우리 가족 전체의 생명을 살려줬다”며 “그저 감사한 마음 뿐”이란 말만 되

풀이 했다. 도우 스님이 장기 기증의 원을 세운 것은 98년 통도사 승가대학 학인시절. 출가한 지 1년 쯤이었다. 불제자



△‘현대불교’에 실린 마성스님 서평을 읽고 있는 김용욱 교수.

“EBS특강 불교 새인식 계기로”

도올 김용욱교수, 정대 총무원장 예방

질문을 받고 “정직하고 깨끗한 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정대스님이 “달라이 라마 초청 문제는 정치적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얽혀 있어 쉽지 않다”고 했고, 도올은 “정치적 사안을 떠나 초청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도올이 29일부터 시작되는 EBS 기획특강과 관련해 “이번 기회를 한국 지식대중에게 불교를 인

가하기도 했다. 총무원을 방문한 후 도올은 현대 불교신문이 운영하는 책방 여시아문을 방문해 등록역경원에서 출판된 현대불교신문서 시리즈 30여권을 구입했다.

도올은 특히 현대불교신문 383호 15면에 보도된 자신의 최근저서 <달라이라마와 도올의 만남>에 대한 마성스님의 서평에 대해 “건

“건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 불교-세계주류 접목 이제부터”

식시키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정대스님은 “불교를 현대적으로 해석하는데 부족한 면이 많다.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고 답했다. 도올은 “불교가 세계의 주류와 접목이 됐으나 지금부터 시작이다. 한국불교는 이론적 토대와 수행풍토가 서 있고, 우리 민족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데, 이런 불교는 세계 어디에서도 흔치 않다”고 평

전한 비판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며 “논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교가 그만큼 발전한다”고 말했다.

마성스님의 서평과 이에 대한 도올의 견해가 현대불교 일간 인터넷신문 ‘붓다뉴스’(www.buddha.news.com)에 보도되자 21일 현재 50여건의 의견이 오르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명우·김두식 기자

미군캠프에 문화유적 20여점

문화재청 조사 석불입상 2점등 지방문화재 가치

문화재청은 12~14일 주한미군 주둔지역 내 문화유적에 대한 정밀지표조사 결과 부산 캠프 하리아의 고려시대 석불 3점을 비롯해 전국 5개 캠프에서 20여 점의 문화유적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주한미군 주둔지역 안에서 문화유적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부산시 부산진구 캠프 하리아에

서 발견된 높이 85~95cm의 석불입상 2점과 석불 반가상 1점은 고려시대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조각기법은 단순하나 보존 상태가 양호해 지방문화재로 지정될 가치가 충분한 것으로 평가됐다.

문화재청은 “이들 유적에 대해서는 국가 귀속과 문화재 지정 등의 보존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앞으

로 주한미군 주둔지역 안에서 지속적으로 문화유적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석불 외에도 고인돌 7기(대구 캠프 헨리와 19세기 석상대구 캠프 위계, 분포 8기(경북 왜관읍 캠프 캐럴, 일제시대 신사 기둥대구 캠프 조지) 등이 확인됐다.

권형진 기자



△하리아에서 발굴된 석불입상

부산 구룡사 인근에 쓰레기 주차장

신도·주민등 200여명 구청에 허가취소 요청

부산 덕천근린공원 내에 위치한 구룡사주지 효신 인근에 쓰레기 차량 세차 및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자 신도들과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17일 구룡사에 모인 신도 및 주민 2백여 명은 근린공원입구에 쓰레기차 세차 및 주차장이 들어서게 되면 쓰레기 폐기물, 청소차의 매연, 소음, 악취 등으로 공원의 면모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며 허가신청 불허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시지정 문화재인 의성으로부터 50m 이내의 거리에 있어 문화재현상변경 심

의를 거쳐 허가를 얻었으므로 법적으

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재현상변경 심의위원회 의원 윤영주 교수는 “건물만 짓는다고 해서 허가했다”며 “쓰레기차 주차장과 세차장이라면 심의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며 현상변경 허가 과정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효신스님은 “근린공원에 쓰레기차 주차장과 세차장이 들어서는 것은 허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북구청을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천미희 기자

봉정사 극락전 기둥

외국산나무로 보수돼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물로 알려진 경북 안동시 봉정사 극락전(국보 제15호)의 기둥 일부가 외국산 나무로 판명됐다.

19일 문화재청은 극락전 처마와 부재의 처짐현상과 벽체의 균열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기둥의 시료를 채취, 산림청 산하 임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 기둥 16개 가운데 4개가 북미산 리기다 소나무, 1개가 낙엽송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또 2개 기둥은 규격에 미치지 못하거나 손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72년 해체보수 과정에서 이같은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며 “극락전의 역사성을 감안해 기둥 중 외래수종 5개를 포함해 7개의 기둥 모두를 내수성과 내후성이 강한 우리 고유의 육송으로 교체해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동 봉정사 총무 진홍스님은 “적절치 않은 나무가 기둥으로 사용된 것은 잘못이지만 이번엔 사실이 규명돼 보수공사에서 교체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라고 말했다.

안동=박원구 기자

강제수용 선암사 앞 토지

주공, 비싼값 받고 되팔아

95년 서민아파트 건설 명목내 세워 선암사 앞 토지를 강제 수용했던 대한주택공사가 그 땅을 민간건설회사에 비싼 값으로 되팔아 물의를 빚고 있다.

전통사찰인 선암사의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에 심각한 훼손이 예상되자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불교계와 환경단체의 거센 반발이 있었으나 주택공사는 선암사 부지 2만여 평을 강제 수용했다. 또한 2만여 평 가운데 9천

여 평에는 주공아파트를 짓기로 했지만, 지난해 1만1천 평의 부지를 민간건설회사인 건봉개발에 되판 사실이 드러났다. 수용당시 35만원이던 평당 가격을 243만원으로 7배 올려 민간건설회사에 되판 것이다.

선암사측은 “서민주택 건설을 빌미로 전통사찰의 토지를 강제수용해놓고 민간업체에 되판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천미희 기자

문화·이벤트 행사로 청년불교 활성화

사랑의 연꽃페스티벌 행사

대불칭·듀오 공동주최

대한불교청년회(회장 김규범, 이하 대불칭)는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공동 주최로 올 10월 12일 강남 코엑스에서 ‘사랑의 연꽃 페스티벌’을 연다.

청년불교 활성화를 위한 대불칭의 기획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페스티벌은 불교상식 열전 퀴

즈, 사랑의 연꽃 촛불 전달식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불자의 건전한 만남과 결혼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대불칭은 사랑의 연꽃 페스티벌에 이어 친체된 각 지구와 지회 활성화를 위해 ‘불교청년인연의 밤’과 ‘절로 가는 인연여행’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10월 중에 가질 계획이다. (02)738-1920 김철우 기자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동국대 사회교육원

동국대 사회교육원(원장 권기중)이 가을학기 수강생을 30일까지 모집한다.

동국대 사회교육원은 불교교양, 불교전문교육, 불교연구, 불교박물관대

학, 학점은행제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별교육과정으로 방과 후 아동지도사과정과 표현자료과정을 두고 있다. 수업은 9월 2일부터 시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02-2260-3728-9)나 홈페이지(http://dgucc.dongguk.ac.kr/~soedu/index.html) 참조. 권형진 기자

최면-전생 특강 안내



21세기는 황도대(天球의 적도)의 변화에 따라 지난 2000년의 쌍어공시대가 막을 내리고 영적 개화의 시기인 보병궁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보병궁 시대는 인간의 영성이 열려서 산 자와 죽은자 사이에 영적 교신의 실재성을 받아들이게 되는 시기입니다. 또한 이 시기는 영혼의 실재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가 '삶'의 사실로 밝혀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나는 누구인가.....나는 왜 여기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 물음에 대한 진정한 답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찾아보십시오.

점(占)과 철학으로 사람의 운명을 상담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면-전생 요법으로 당신의 전생과 미래의 삶의 모습을 마음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십시오. 그래서 이생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 영혼의 완성을 위한 배움터 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각각의 전생의 카르마(業)에 의해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정되어져 있는 영혼의 프로그램을 최면-전생을 통하여 확인하십시오.

강의 내용

- ① 타인최면유도 ② 최면으로 하는 제령(際靈)전도 ③ 원격 제령(際靈) 최면 ④ 전생퇴행최면 ⑤ 최면파동(波動)요법

강의 안내

- 개강 : 수시접수 ○ 시간 : 매주 토요일 3시간, 3개월 과정 ○ 특강 : 지역별 그룹특강 가능



법운 선생님 약력

- 2001년 SBS '호기심 천국' - '최면술의 놀라운 진실' 출연
- 2002년 KBS 'VJ특공대' - '최면의 세계' 출연
- 동래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 세계 아마미포 기공협회 회장
- 동방 최면전생 연구소 소장
- 현 '삼경그룹' 고문으로 재직

※ 저서 '우리는 태어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

동방최면전생연구소

- ◆ 문의처 : 017-587-0777, 051) 806-8500, 817-6156
- ◆ 홈페이지 : www.dongbang21.co.kr